

Fire News

PC통신(국내, Web)에서 발췌한 각종 화재·폭발 사고를 제공.

96/ 12/ 20 방위산업체에서 폭발, 5명 부상

오후 8시 20분경 경남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954-1 방위산체 '대화화공' 작업장에서 불이 나면서 폭발, 작업 중의 인부 김모(45)씨와 한모(50)씨 등 5명이 중경상.

불길에 번지면서 작업장 내의 질산나트륨 등 탄약원료 10kg 소실하고, 다연발 최류탄과 사격탄 등이 터져 진화에 어려움.

보관 중의 최류탄 및 클레이 사격탄의 원료인 화약취급 부주의로 폭발.

96/ 12/ 20 러시아에서 가스 폭발, 37명 사망

상트 페테르부르크 북부 120km 프리오지요르스크에 있는 아파트(4층)에서 오전 1시경 가스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에 이어 화재 발생, 최소 18명 사망, 19명 실종, 4명이 부상당했다고 핀란드의 국제적십자사가 밝혔다.

주민수는 79명으로 화재는 아파트 주민 중 요금 미납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된 일부 주민들이 날씨가 추워지자 안전규칙을 어기고 가스를 재연결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테르팩스통신은 전했다.

96/ 12/ 21 독일 정신과 병원 화재, 9명 사망

슬레스비히-홀슈타인주 바트 제게베르크市 인근 리클링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의 환자가 사망, 나머지 환자 20명과 간호원 3명은 구조됨. 화재원인 불명.

화재는 수용인원 30명인 여성 전용 정신병동에서 발생하였으며, 당시 29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96/ 12/ 22 지하 주점에서 화재, 중상 1명

오후 11시 45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 대준빌딩 지하 키티란주점에서 원인미상의 불이나 내부 80여평을 태우고 50여분만에 진화.

종업원 한모(19, 여)양이 연기로 질식되어 중태. 업소 안에는 연기가 짙 차고,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고 하나 경찰은 누전으로 추정.

96/ 12/ 22 미국 군수공장서 폭발, 7명 사망

미국 국방부에 폭탄 외피를 납품하는 텍사스주의 군수공장서 22일 밤,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7명 사망, 2명 부상.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용접봉의 불꽃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500명의 직원 중 사고 당시 일부만 작업 중이었음.

96/ 12/ 24 여관에서 방화, 1명 사망, 5명 부상

오전 7시 5분경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소사본2동 96 셀브르여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투숙객 중 30대 1명 숨지고, 최모(45, 여)씨 등 5명이 중경상.

불은 여관건물(4층)의 2~4층 일부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 정신이상자의 방화 추정.

96/ 12/ 26 점포 화재, 진입로 좁아 진화 곤란

새벽 3시 40분경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 96-29 '일신가방'에서 불이나 건물 75평 일부와 상품, 인근 점포 3곳 등을 태워 6천6백만원의 재산피해.

소방대 20여대가 출동하였으나, 진입로 좁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원인은 함선 추정.

96/ 12/ 26 H중공업 화재, 재산피해 5억원

상오 9시 15분경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내 발전설비를 생산하는 변압기공장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공장 내 6개동 3,300여평을 태우고 2시간만에 진화.

이 화재로 발전설비 공급에 막대한 차질과 약 5억원의 재산피해, 작업자 1명이 연기에 질식하여 후송됨. 화재 원인은 누전 또는 용접 불티가 가연재로 튀어 인화된 것으로 추정.

96/ 12/ 29 빌라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화재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K빌라 지하 박모(49)씨 집에서의 화재로 딸(12)이 질식사했으며, 불은 건너방 침대 위의 전기장판 과열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

97/ 01/ 02 노래방에서 화재

오후 11경 전북 군산시 대명동 138-34 현숙노래방에서 불이나 건물 내부 70여평과 노래방 기기 등을 태워 3천 8백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만에 진화.

8호실 천장에서 불길에 치솟아 소화기로 진화하려 했으나 내부로 빠르게 확산됨. 경찰은 함선으로 추정.

97/ 01/ 05 말다툼으로 방화, 2명 중상

오전 11시 35분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J씨 2층 집에서 불이나 둘째딸과 사위가 화상으로 후송됐으나 중태.

주민에 의하면, 이른 아침부터 2층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 내다보니 2층 거실에서 갑자기 불길에 휩싸였다고 함.

평소 싸움이 잦았으며 최씨 장인과 말다툼하다 화김에 석유를 뿌리고 방화한 것으로 추정.

97/ 01/ 06 난로에 기름 주입 잘못으로 화재

오전 10시 30분경 대전시 서구 용문동 "까꼬뽀꼬

미용실"에서 불이나 주인 김씨의 작은 딸(3)이 소사하고, 김씨와 큰딸(9)이 2~3도 화상.

불은 미용실 내부와 집기비품을 태우고 1백만원의 재산피해와 티코 승용차 1대 소실.

주인 김씨에 따르면 딸과 함께 석유난로에 기름을 넣다가 흘러 넘친 기름에 인화.

97/ 01/ 12 여인숙 화재, 2명 사망, 1명 부상

오전 5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금호여인숙 1층에서 불이나 신원 미상의 남녀 투숙객 2명 질식사, 3층의 투숙객 마모(28)씨가 뛰어내리다 다리 골절상.

불은 방 25개 중 10개를 태우고, 1,100만원의 피해를 내고 30분만에 진화. 1층 거실과 천장에서 탁탁 소리와 함께 불이 난 것으로 보아 노후 배선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

97/ 01/ 12 화장실에서 폭발, 노인 사망

오후 2시 5분경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1가 호반동 노인정 뒤 간이 화장실에서 불이나 유모(76)씨가 소사.

술취한 유씨가 플라스틱 간이 화장실에서 담배불을 붙이려 할 때, 체류한 종류 미상의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

97/ 01/ 17 일본 원자력 발전소 화재

일본 후쿠시마현의 나라하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 즉시 진화되어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지는 않았다고 도쿄전력이 밝힘.

발전소 내 110급 제2 원자로에서 전화선 설치에 사용되는 연장이 과열되면서 이를 담아 놓은 가방이 불길에 휩싸여 화재 발생, 부상자는 없음.

97/ 01/ 18 지하 호프집에서 화재

오전 3시 30분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호펜호프에서 화재, 내부 20평을 태우고 30분만에 진화(피해액 : 1,300만원 추정)

지하의 호프집 환기구를 통해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고, 카운터 옆 콘센트가 심하게 탄 것으로 보아 합선으로 추정.

97/ 01/ 19 치정문제로 살인 방화

오전 5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거여1동 이모(41)씨가 집 3층 옥탑 세간방에서 이모(28, 여)씨가 알몸으로 피를 흘리며 불에 그을려 숨져 있는 것을 주인이 경찰에 신고.

40분 뒤 구리-관교간 고속도로 밑 야산에 숨어 있던 동거자 한모(33)씨를 체포. 치정문제로 싸우다 이씨를 살해하고 방화, 도주.

97/ 01/ 20 아파트 경비실 화재, 1명 질식사

오전 6시 10분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대치도시개발아파트 103동 경비실에서 석유난로 과열로 발화하여 경비원 기모(53)씨가 질식사하고 내부 2평

소실.

97/ 01/ 20 백화점 화재로 6층까지 연기 소손

오후 6시경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 화니백화점에서 화재. 지하 2층에서 시작된 불은 본관 6층까지 연기에 휩싸였으나 매장 상품에는 확대되지 않았다.

20여대의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에 나섰으나 발화지점을 찾는데 1시간 30분 소요되어 오후 8시 10분에 완전 진화.

불은 오전 9시부터 용역업체 직원 4명이 보강공사 중 인입전선이 지하 2층 배전판에서 단락, 쓰레기로 옮겨 붙어 발생.

97/ 01/ 26 알미늄공장 화재

오전 7시 35분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1다 301호 대일알미늄공장에서 불이나, 1,500여평 규모의 공장 2동 중 일부를 태우며 3,000만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만에 진화.

화재원인은 누전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것을 조사중.

97/ 01/ 26 화학공장 PILOT동에서 폭발

오전 10시 20분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00(주)SKI PILOT동에서 시험작업 중 2천ℓ 용량의 철제 화학약품 반응탱크(리액터)가 폭발. 이 사고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김모(35)씨, 장모(50)씨 등 정밀화학본부 직원 7명이 폭발로 튕겨나온 탱크 파편 등에 맞거나 폭발 후 발생한 불로 중화상.

폭발사고로 공장을 중심으로 반경 200m 내의 공장 건물 슬레이트 지붕이 날라가고 유리창이 수백장 파손되었으며, 백여명의 주민이 대피.

SKI 측은 "자동차 등의 부품으로 사용될 새로운 재질의 강화플라스틱 시험제조 중 탱크 내압력이 상승하면서 안전장치 고장으로 이상 고압이 걸려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5천8백만원으로 추정.

97/ 01/ 27 기계공장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

오후 5시 40분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한국기계에서 불이나 공장 안에서 용접작업 중이던 이모(35)씨가 중화상.

화재는 공장 내부 30여평을 태우고 1,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원인은 승강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내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기름이 묻은 부품에 옮겨 붙어 일어남.

97/ 01/ 29 중국 안산호텔 화재 30명 사망...

오전 5시경 중국 중부 호남성 장사시의 안산호텔 2층에서 화재 발생하여 7층까지 확대, 3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

많은 투숙객들은 모든 층의 비상구가 막히자 창문에 뛰어내렸다고 신화사 통신이 전연.